

김지사 “전남지역 국립 의과대학 반드시 설립돼야”

복지부장관 만나 정원 확대 논의 ‘의대 신설’ 건의 오늘 박광은 민주 원내대표 면담 당 차원 지원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전남도내 국립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전남은 섬 등 의료 취약지역이 많고 초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어 의료 수요가 높은 데 반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지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들고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치료도 불가능하다”고 열악한 의료 현실을 설명했다.

실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전남이 유일하다. 상급종합병원도 없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 달한다. 1인당

의료비는 241만9천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다.

중증 응급환자 유출률은 전국 광역단체 중 최고인 48.9%에 이른다. 전국 평균 23.3%보다 25.6%p나 높다. 중증 외상환자의 49.7%도 타 시·도로 전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80만명 도민이 타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1조5천억원의 비용이 타 지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그는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타개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의사제 도입 등 공공성이 담보된 지역 맞춤형 국립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의료현안협의체에



김영록 전남지사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보건복지부 소관 전남 주요 현안사항 등에 대해 건의했다. <전남도 제공>

서 ‘의대 정원 증원’ 논의 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의대 신설’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전남의 어려운 의료현실에 공감을 표하며 “앞으로 지역 의사제 등을 포함한 국립 의과

대학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9일엔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7일 국립 목포대·순천대와 도민 의료여건 개선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 공동 협력을 골자로 한 선언문을 발표했다.

전남도·목포대·순천대는 선언문을 통해 ▲전남도민의 의료여건 개선과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 타개 앞장 ▲국립 의대 설립을 위한 양 대학 간 역량 집중 및 상호 협력 강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의대 신설 반드시 포함 촉구 등의 내용을 담아 공동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전남지역 양대 국립대학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에 국립의대가 설립되도록 함께 역량을 집중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대학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공동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도시 재생·지역공동체 발전’ 머리 맞댔다

세미나서 국내외 사례 공유 구도심 활성화 방안 모색

광주시는 8일 동구 푸른마을공동체센터 3층 다목적홀에서 ‘도시 재생과 지역공동체 형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지역공동체발전학회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도시재생 사례를 분석·공유해 구도심의 지역공동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는 문영훈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학계, 도시재생분야 전문가, 각 자치구 도시재생공동체센터 공무원, 시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시의 ‘도시재생 추진 성과’ 발표

에 이어 ‘동구의 도시재생 사례’를 소개하고 백진 서울대 교수의 ‘도시공간구조와 삶의 방식의 혁신’, 조정형 부경대 교수의 ‘도시재생과 공존하는 지역 공동체 운영’에 대한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유중 광주시 도시활성화팀장은 ‘도시재생 추진 성과보고’에서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 현황과 함께 ▲푸른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도심 재생 ▲동명마을 ▲창작농성골 ▲오천마을 재생 프로젝트 ▲도심 상권활성화로(略), 사랑중심 행복도시로(略) ▲살고싶은 양

림마을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 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행복공간, 버드리 야구마을 ▲문화역세권 1913송정 ▲월곡 고려인 마을 등 10곳의 대표적 자치구 도시재생사업을 소개했다.

이 팀장은 “주요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생활환경 개선, 주민참여형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도시 공간을 창조적 변화로 이끌어 생기 있는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백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도시재생의 지향점은 필요와 수요에 대한 단계적 대응도 실행해야 하지만 지속 가능한 삶의 열망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실행하는 것이 좀 더 근본적인 지향점”이라며 “도시공간 구조와 삶의 방식 혁신, 도시재생의 근본적 지향점을 재정립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한 사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형 국립부경대 공업디자인전공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광주 구도심의 도시재생사업 현주소와 일본의 도시재생 사례를 들여다보고 구도심이 인구 감소와 빈집 등으로 공동화돼 가는 상황에 공존의 도시재생사업 전환시기를 강조하고 새로운 민·관·학이 함께하는 기업형 재생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선강 기자

광주 민·관 합동 830곳 집중 안전점검

광주시는 8일 시청 충무시설에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17일부터 자치구, 공사·공단 등 23개 기관과 민간전문가·시민이 참여한 광주안전지원단, 시민안전관찰단 등과 함께 7개 분야 830개소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광주시는 이날까지 총 766개소(92.3%)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완료했다. 남은 64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며 오는 16일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건물 옥상 방수층 균열, 실내 체육시설 지붕 트러스 연결부 이탈, 산사태위험지역 낙석방지 시설 훼손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281건을 즉시 시정 조치했다.

또 장기 보수·보강이 필요한 194건은 해당 관리기관에서 별도 보수 계획을 수립해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낙엽 등으로 하수구 등이 막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5개 자치구는 특별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선강 기자

전남도 ‘찾아가는 영화관’ 12일부터 접수

전남도는 8일 “도민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산간·도서·농어촌 등 문화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영화 상영과 마을영화 제작 등 다양한 영상문화 서비스를 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전남영상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영화관’ 참여를 바라는 시·군은 오는 12일부터 5일간 전남영상위원회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 5개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영화 상영 외

에 마을영화 제작이라는 특색 있는 경험을 추가해 더욱 특별한 기회를 선물할 계획이다.

마을 특산물과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모델로 이야기가 있는 마을 달력을 만들고 이 과정을 10월 개최 예정인 제1회 남도영화제와 연계해 짧은 영상으로 제작, 해당 마을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SNS)에 홍보할 예정이다.

또 문화공연, 장수사진 촬영·액자 전달, 증명사진 촬영을 통한 주민등록증 사진 변경 등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양국진 문화예술과장은 “마을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마을영화 제작 프로그램은 즐겁고 특별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전남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전국 최다

복지부 공모 6곳 추가 총 11곳

전남도가 보건복지부의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공모에 전국 18개 시도 중 가장 많은 6개 시·군이 선정돼 임

부과 2개 미만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 상담·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순천·화순·장흥·해남·신안 등 5개 시·군에서 운영했으며 올해 추가로 선정된 광양·담양·고흥·강진·장성·진도 등 6개 시·군을 포함한 총 11개 시·군에서 확대 추진한다. /김재정 기자

광주매일신문
경사 2주년

내일의 꿈을 꾸민다

종합인쇄전문기업
(주)다원

최저가
인쇄소질문 **1688-9959**

(주)다원은
성실과 신의를 기업이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보다 큰 의욕,
그리고 새로운 궁지와 자부심으로
정성의 맘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원인쇄물루션

검색